| 불자 세상보기 |

집단의 함정과 연기의 정치



방영준
성신여대 윤리교육과
명예교수

길었던 탄핵 정국이 끝났다
새 정부 출범 긍정적 평가
하지만 왠지 조마조마하다

한국사회에 산재한 갈등들은
집단의 자기조직화서 비롯돼

연기, 無明을 벗어날 고차도덕
'우리 對 그들' 경계를 벗어나
現 정부, 연기의 정치 구현해야

요즘은 그래도 개운하다. 탄핵 정국에서 치러진 대선 기간이 왜 그렇게 길었는지 하루하루가 먹먹한 나날이었다. 한국 정치의 민낯을 그대로 보기에는 내 가슴이 너무 옇었다. 이제 대선이 끝나고 새로운 정부가 출발하니 여하튼 긴 터널을 벗어난 기분이다. 문재인 대통령의 출발도 산뜻하게 보이고, 이런 저런 인사들도 신선하고 긍정적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선은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지 못한 박근혜 前 대통령으로 인한 착시현상에서 나온 것인가? 문재인 정부는 검찰 개혁에서부터 4대강 문제에 이르기까지 과거의 적폐에 대해 과감한 청산 의지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웬일인가? 전적으로 박수를 보내면서도 한편 조마조마한 생각이 든다.

웬 조마조마한 생각? 하버드대 심리학자 조수아 그린(Joshua Greene)이 쓴 〈옳고 그름(Moral Tribes)〉이란 저서의 내용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조수아 그린의 주장은 도덕적 삶의 유효성을 개인 단위가 아닌 부족(집단)에서 찾았다.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대다수의 인간은 도덕적이지만 왜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죽이는가? 그것은 인간의 도덕성은 같은 집단 내에서만 유효하기 때문이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에서 '그들'보다 '우리'를 앞세운다. 이념 갈등, 인종 갈등, 종교 갈등 등 우리 사회의 도덕적 갈등은 대부분 '우리 집단'과 '그들 집단'의 도덕이 일치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도덕은 옳고 그름을 말해주는 기준이 결코 아니다. 이제 도덕적 갈등을 바라보는 종래의 관점을 바꾸어서 두 집단의 폭을 좁히기 위한 비상한 노력을 해야 하며, 도덕적 경계선을 뛰어 넘는 '고차도덕(Metamorality)'을 정립해야 한다."

조수아 그린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드리는 것은 아니지만 한국의 현실을 생각하면 섬뜩하다. "우리가 남이가"라는 구호는 지금도 술자리 건배사에서 자주 등장하지만, 한국의 선거판에 은밀히 등장하는 단골 슬로건이기도 하다. 이 삼천리 금수강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부족들이 '우리'와 '그들'로 나누어져 있는가.

이념 · 지역 · 계층 · 세대 등 도덕적 경계선이 다른 여러 '부족'들이 혼재되어 있다. 조수아 그린에 의하면 집단의 도덕은 옳고 그름의 판단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집단의 자기조직화 과정에서 나온 진화적인 장치이다. 그러면 도덕적 경계선을 뛰어 넘는 '고차 도덕'을 어떻게 창출하나? 이에 실패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도 실패하고, 우리와 그들의 미래는 함께 깜깜하다.

무명의 깜깜함을 벗어날 수 있는 고차 도덕이 있다. 바로 붓다 다르마, 즉 연기법이다. 연기란 조건에 따라 일어나고 존재하고, 그 조건이 없으면 사라지고 존재하지 않는다. 연기적 사유는 본질을 찾는 형이상학과 결별하고 무상함을 보는 지혜이다. 이것은 같음을 거부하고 다름을 보는 '차이의 시선'이다.

그런데 인간은 변하는 것, 무상한 것에 불안을 느낀다. 그래서 변하는 것을 잡아 고정화 시키고자 한다. 즉 동일성의 욕구가 생긴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만들고 '그들'을 구분하는 집단적 환상에 빠지게 된다. 여기서 집단적 무지가 발생하고 다른 부족을 구분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운다. 한국 정치는 그동안 '부족의 함정'에 빠져 허우적거리면서 얼마나 표류하였던가.

이제 연기의 지혜를 정치에 적용하여 '연기의 정치'를 구현해야 할 것이다. 연기는 함께 사는 중생의 지혜다. 새로운 정부에 연기의 지혜가 가득하게 피기를 바란다. 연기의 씨를 뿌릴 곳은 백담사 계곡이 아니라 광화문 거리의 아스팔트다. 그만큼 불교와 불교인의 책임이 크다.

社說

미래세대委, 불교 메리트 찾아라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미래세대위원회 출범을 위한 준비위원회 2차 회의가 열렸다. 이번 회의서는 미래세대의 범위와 위원회 활동목적 등을 논의했다. 하나로 의견을 모으기 어려울 만큼 많은 의견이 쏟아졌지만 그 중 받아들이기 불편하면서도 지극히 현실적인 지적이 제기됐다.

"불자 대학생 중에 인재는 많지만 그 인재들이 불교계에서 봉사한다거나 일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보통이다. 메리트가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불교계서 일하는데 '월급은 제대로 받느냐'고 묻는 친구도 있다."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을 역임한 이채은 대불련 간사의 말이다. 씁쓸함이 뒤따르는 타당한 진단이다. 그리고 이 같은 진단이 곧 젊은 세대가 느끼는 불교의 이미지다. 청년들은 불교계에 묻는다. 불교가 나에게 어떤 도움이 되고, 일한 만큼 보람과 대가를 받을 수 있는지.

이제는 불교계가 답할 차례다. 물론 "메리트를 위해 신앙을 갖는 것은 옳지 않다"고 반박할 수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런 입장은 현재 한국불교가 처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웃종교를 보자. 개신교만 하더라도 이제는 아이들이 여름성경학교를 다녀오지 않으면 친구 사귀기가 힘들 정도로 영향력이 커졌다. "부처님 가르침만 알면 불교신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상적인 말만으로 대중을 설득하는 시대는 지났다.

불교를 믿음으로써 확실한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쉬운 교육시스템과 문화프로그램이 절실하다. 미래세대위원회가 불교의 메리트를 발굴하는 데서 출발해야 할 이유다.

청년 감소 불교, 대책 없나

흔히들 서울을 대한민국의 축소판으로 본다. 전체 인구 중 1/5이 살고 있고, 부자부터 빈민까지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서울시에 사는 20~30대 청년 세대들의 종교 생활을 연구한 〈서울사회학〉 수록 논문 '청년세대, 피안은 어디인가: 행복 · 종교 · 세대의 관계성 탐색'은 눈길을 끄는 부분이 많다. 특히 불교계에는 여러 부분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우선적으로 서울시 종교 인구 중 청년 불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4% 정도 밖에 안된다는 점이다.

60세 이상의 고령 불자 인구가 22%를 넘는 반면, 청년 불자 인구는 한 자리대라는 점은 가히 충격적이다. 40대 장년층에서도 불교는 가톨릭에 밀려 3위 종교로 추락했다.

산술적 수치만 놓고 본다면 서울시 불교 인구의 확장성은 적신호가 아닌 '고사(枯死)' 수준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종교유형별 행복지수에서 불자 청년들은 10점 만점 기준 7.36으로 행복도가 가장 높았다는 점은 희망적이다. 사회 · 종교적 안전망에 대한 인식도에서도 불자 청년은 불교를 안전망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원인은 명확하다. 어린이 · 청소년에서 대학생, 청장년, 노년으로 이어졌던 연령 포교 고리가 부재해진 지난 20~30년의 공백은 불교 미래 인구를 걱정할 수준으로 와버렸다. 보수화된 기성종교 · 교단이 아닌 다채로운 수련 단체들이 제공하는 명상 · 힐링 프로그램에 젊은이들은 몰린다.

이럴수록 근본을 다시 생각하자. 전법에 나서야 하고 수행정진해야 한다. 부처님 법대로 살아가는 사부대중이 돼야 한다. 그리고 국민들에게 희망의 그루터기가 돼야 한다.



기자칼럼
김주일 편집국장

오랜만에 만난 진정한 치유

힐링 멘토 정목 스님이 설립한 마음공부 전문 인터넷 '유나방송'이 개국 10주년을 맞아 5월 20일 서울 한전아트센터서 피아노 연주자 마이클 호페를 초청해 기념공연을 가졌다.

그는 인기 드라마 '가을동화'의 삽입곡인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광고 배경음악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 〈가장 사랑받는(Be loved)〉 등 감미롭고 아름다운 멜로디로 국내에도 많은 팬을 갖고 있는 명상 음악가다.

내가 그를 국내서 처음 본 것은 시계를 3년 전으로 돌린 2014년 4월이었다. 역시 정목 스님과 함께한 특별한 힐링콘서트인 유나방송 개국 7주년 축하 자리에서다.

당시 마이클 호페는 자신의 음악 애청자인 정목 스님과 만나 인연을 맺었고, 그 만남이 또 이번 공연으로 이어지게 됐다고 한다.

고희를 넘긴 노 피아니스트는 자리에 앉자마자 경쾌한 왈츠를 선사했다. 〈마그다의 왈츠〉 〈달의 왈츠〉 〈아이들의 왈츠〉 등등. 이건 확실히 맛보기 애피타이저였다. 공연의 절정은 역시 TV와 광고를 통해 우리에게 친숙한 〈잊을 수 없는 마음(Unforgetting Heart)〉과 〈링컨의 애가(Lincoln's Lament)〉에서 느껴졌다.

어색한 한국말로 인사를 건네는 그의 얼굴엔 웃음꽃이 만연했지만 그가 피아노 앞에 다시 앉자 장내는 또 숙연해졌다. 마음 치유를 받을 준비를 한 것처럼 말이다.

방금 전보다 좀 더 깊은 피아노 선율들이 춤추기 시작했고, 수명이 다한 선율들은 그의 곁에 한 겹 씩 차곡차곡 쌓여 갔다.

호페가 아무리 신나게 내리쳐도 결국은 슬프게 전해졌다. 피아노의 선율은 왠지 모를 한(恨)을 머금고 있었고, 그래서 피아노는 사랑을 노래하기보다 우리네 삶을 더욱 연주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슬픔은 우리를 짓누르는 처절한 슬픔이 아니라 기분 좋은 슬픔이었다. 한번 눈물을 펑펑 쏟아 낸 뒤 느끼는 카타르시스였다.

정목 스님은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비난과 판단치 말고, 그저 그것 자체로 감사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 모두가 나를 위해서 반드시 일어날 일이었음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축복할 때 치유는 시작된다는 이야기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치유는 '나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이라는 정목스님의 말은, 자신 곁의 파랑새를 두고 그것을 찾아 먼 길을 떠나 헤매던 우리에게 일러주는 삶의 정답과도 같았다.

누구도 비켜갈 수 없는 세월과 고통, 그 안에서 품게 되는 사랑과 용서들. 인생을 살다보면 누구나 생채기를 입는다. 하지만 누군가는 그 끝에서 즐거운 시간이었다 말하고, 또 누군가는 괴로운 시간이었다 말한다. 그것은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에 달린 일이라는 의미일 것이다.

분명코 오늘 밤, 내가 선택한 이 공연장의 선율들은 우리에게 충분한 치유가 되어 주었고, 내일부터 즐거운 소풍과 같은 삶을 살아낼 수 있는 힘을 선사했다.

앞으로 이런 엄청난 마력을 뿜어내는 유나방송이 20년, 30년 아니 영원히 존재하길 발원한다. 아울러 제2, 제 3의 유나방송 처럼 우리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다독거려줄 곳도 많이 생겨나길 기대한다. 우리는 너무나 많은 상처를 입으며 살아가고, 또 치유를 고대하기 때문이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발행인 : 혜원 편집인 : 혜도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6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현불샵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 구 지 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512-5003
전 북 지 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 주 지 국 : (054)634-3429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봉 축

원융불교복지승가회

회 장 도현
부회장 효진, 도언
감 사 동호, 원담
사무총장 원표 사무처장 경덕

고 문 : 화 엄 원로위원 : 원 덕 자문위원 : 보 문


회장 도현

거송스님 : 사)해동 호국 조계종 총무원장(용주사)
경덕스님 : 사)대한불교 총화종 대해사 주지
대범스님 : 사)위양 조계종 교육위원장(현성사)
도명스님 : 사)삼보 조계종 사업 본부장(청학정사)
도언스님 : 사)법왕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약천사)
도현스님 : 사)한국불교 현조계종 총무원장(보현사)
동원스님 : 사)한국불교 달마조동종 총무원장(각명사)
동월스님 : 사)대한불교 보문조계종 총무원장(백화사)
동호스님 : 사)대한불교 육조 조계종 총무원장(성덕사)
명성스님 : 사)불 대한불교 조계종 총무원장(상원사)
법륜스님 : 사)한국불교 법륜조계종 총무원장(해광사)
법성스님 : 사)전국불교 법성종 총무원장(법성사)
법원스님 : 사)대한불교 연화조계종 창종주(도솔사)
보문스님 : 사)한국불교 법왕종 총무원장(원월암)
성수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포교원장(반야암)
성종스님 : 사)대한불교 현 조계종 총무원장(용문사)
영봉스님 : 사)대한불교 조동종 청광사주지
원담스님 : 사)세계불교 일화종 주지(서산사)
원덕스님 : 사)호국선불교 조동종 총무원장(연주사)
월성스님 : 사)대한불교 반야수교원 이사장(천불사)
일웅스님 : 사)대한불교 전법조계종 총무원장(청룡사)
자승스님 : 사)대한불교 자황종 총무원장(자황사)
정일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 자광사주지
철암스님 : 사)한국불교 명예의전당 이사장
화엄스님 : 사)대한불교 선교종이사장(화엄정사)
효진스님 : 사)호국불교 선미륵종 종정(선암사)
[가나다순]

※ 원융불교복지승가회와 뜻을 함께하실 회원스님을 모십니다.

● 주소 :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1길 30-3 | ● 사무총장 원표 010-7771-2577